

日本石油産業에 대한 管見

俞 石 在
(雙龍精油 업무부장)

I. 머리말

筆者는 지난 5월 20일부터 3일간 日本 東京에서 열렸던 제1회 韓日石油情報協議會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日本석유업계를 둘러볼 기회를 갖게되었다.

그러나 日本석유업계의 實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일정관계상 무리였으며, 문자 그대로 피상적인 「돌리봄」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따라서 단 일주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번 방문을 토대로 日本석유업계에 대하여 云謂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한 시도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번 방문은 筆者가 사전에 자료 등을 통해 불분명하게 그리고 있던 日本석유업계의 假像에 대한 事實確認過程으로 始終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稿는 구체적 사실에 있어서 부분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 形象에 있어서도 筆者의 편견에 의해 일그러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석유업계의 현황과 진통에 대한 管見을 시도하는 이유는 금번 協議會를 통해 韓國과 日本의 석유업계가 유사한 여건에서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日本 석유업계는 달러강세로 인한 自國通貨 가치하락으로 환율손실에 허덕이고 있으며, 유통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점증하는 석유제품 수입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심하는 모습이 업계 전반에 걸쳐 두드러져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대해 그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확실히 우리보다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유정책은 석유가 連產品이라는 특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인식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통제는 한결 엄격할 수 밖에 없다.

석유업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인 반면, 행정지도 및 권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公文보다는 協議를 통해, 강제보다는 설득을 選好하는 風土는 모든 면에서 如實하였다.

반면에 원유도입등 업계의 自律的 判斷을 통해서만 최선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철저히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本稿에서는 먼저 日本 석유산업의 변천과정, 유통구조, 세제, 수입제도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당면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간략히 略述하고자 한다.

원유도입과 제품수급에 관한 사항은 참고자료로 末尾에 제시하였다. 참고가 되길 바란다.

II. 石油産業의 변천과정

1. 근대석유산업의 탄생

日本 최초의 석유회사는 1871년에 설립된 長野石炭油會社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試掘에 실패하여 1978년에 도산하였으며, 근대적 석유산업의 효시는 오히려 1888년에 「니이가타」에 설립된 有限責任 日本石油會社에서 發端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同社는 해

자유전의 기계식 굴착에 성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석유 회사인 寶田石油의 발족을 촉진하였다. 明治時代의 日本 석유업계는 이 두 會社에 의해 兩分되어 성장해 가게 된다.

1893년에는 석유제품의 수송을 위해 北越철도가 준공되었으며, 시굴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니이가다」 철공소가 발족되었다.

採掘의 기계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日本 석유 시장의 전망을 밝다고 판단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1890년대 후반에 美國의 스탠다드와 英國의 쉘系の 사뮤엘商社가 日本시장에 진출하여 수입등유 판매경쟁을 벌였다. 스탠다드는 1900년 원유채굴과 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子會社 인터내셔널석유를 설립하고 니이가다에서 대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에 착수하였다. 한편 사뮤엘商會도 쉘 운수무역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요코하마 사무소의 石油部를 독립시켜 라이징 선 石油(주)라는 별도의 法人으로 발족시키고 후꾸오까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은 미·영의 2대 메이저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日本石油은 1899년 니이가다에 근대적 시설의 정유공장을 건설, 정제의 합리화를 꾀하였으며, 宝田石油은 다수의 군소광구를 매입, 채굴의 집중합리화를 도모했다.

1909년 日本은 自國產 原油보호를 위해 수입원유에 관세를 창설하였다. 같은 해 원유부족으로 허덕이던 인터내셔널 石油은 日本石油에 합병된다.

2. 태평양연안 정유공장의 출현

1910년경 전등이 보급됨에 따라 조명용 등유를 중심으로 하던 석유시장은 급속히 동력용 연료시대로 바뀌어 갔다. 특히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동차, 오토바이의 보급, 대형선 및 해군함정의 重油로의 전환, 항공기의 등장에 따라 석유소비는 量과 質의 양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일본산 원유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이미 日本시장에 진출해 있던 메이저系 2社는 日本시장에의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항하고 부족한 국내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1921년 日本石油과 宝田石油은 합병, 日本石油(株)를 발족시켰다.

이 시점을 경계로 원유의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웃돌기 시작한다. 그 이유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후 세계적으로 석유개발붐이 일어났다. 美國의 캘리포니아州를 비롯하여 새로운 유전의 개발이 잇달아 원유수급은 공급과잉상태를 빚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원유의 가격은 일본산 원유가격의 半정도로 떨어지게 되었다.

둘째, 일본산 원유는 1915년을 고비로 쇠퇴기에 접어들어 공급능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석유수요는 증가일로인데 반하여 산유량은 감소를 거듭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그 때까지 일본산 원유의 채굴, 정제의 주체였던 日本石油(株)는 동해안에 위치한 정유공장을 정리하고 수입에 편리하고 소비지에 가까운 태평양연안에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수입원유가 완전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日本석유산업의 중심지는 동해안에서 태평양연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3. 戰后의 再編

제2차 세계대전은 석유업계에도 통제와 통합의 바람을 몰고 왔다. 大戰초기에는 30개를 上廻하던 정유회사도 1942년에는 8개社로 통합되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석유정제 시설은 58%가 폭격을 입어 제조업중 최고의 피해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산업의 非軍事化, 日本경제의 민주화를 課題로 하는 연합군의 점령정책으로 태평양연안의 정유공장 복구는 一切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戰時중 통제목적으로 제정된 石油業法이나 石油轉賣業法 등도 전부 폐지되었다.

석유공급은 日本 원유를 원료로 최소한의 가동만이 허가된 동해안 정유공장의 생산량과 점령군이 방출하는 제품이 전부였다. 엄격한 소비규제가 실시되었음은 물론이다.

1947년 가을부터 미·소간의 冷戰이 심화됨에 따라 연합군의 점령정책도 일본경제의 自立化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49년 來日한 노엘 調查團의 報告書를 기초로 연합군사령부는 「태평양연안 정유공장의 조업 및 원유수입에 관한 覺書」를 발표했

다. 이에 의거 기존 정유공장의 복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제품수입이 원유수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中東에서 개발한 원유의 판매시장개척에 血眼이던 메이저의 戰后經營戰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日本석유업계는 원유의 안정적 공급확보, 정유공장 가동재개를 위한 막대한 자금소요충당, 정제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외국석유회사와의 제휴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日本 석유회사와 메이저간에 제휴교섭이 진행되었다. 2차대전중 정유공장의 폭파로 판매능력과 정제능력간에 현저한 乖離를 보이고 있던 日本석유업계로서는 販賣部門과 精製部門을 구분하여 메이저와 각각 위탁정제계약,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제휴하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가급적 제한하려는 일본석유업계의 희망과도 맞아 떨어졌으며 새로운 중동원유의 시장확보가 주목적이던 메이저의 요구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다.

1950년 6월 「外資에 關한 法」이 공포되어 외국기업과의 제휴는 委託精製, 委託販賣의 범주를 벗어나 資本提携로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유회사의 판매부문과 정제부문은 독립된 기업으로 개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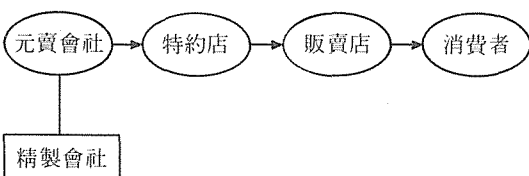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興件變化에 따라 離合과 集散을 거리낌없이 반복해온 日本석유업계의 풍토로서는 당연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다.

Ⅲ. 石油製品의 流通構造

1. 概 要

日本 석유산업의 유통구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림-1>에 표시된 바와 같이, 元売會社→特約店→販賣店으로 흐르는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는 우리의 精油會社→代理店→注油所의 흐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石油製品의 流通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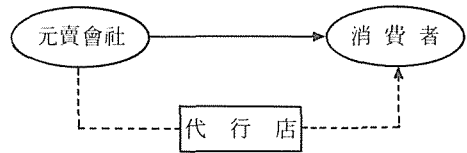


판매형태별 유통구조도 우리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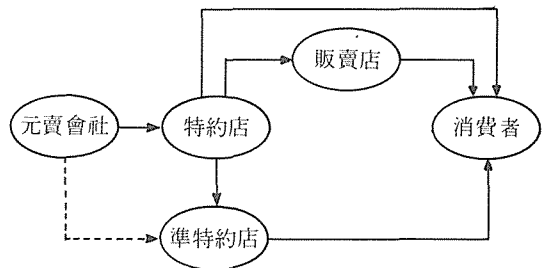
直売는 元売會社에서 消費者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에 代行業이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代行業은 中央에서 계약, 受注업무를 대행하기도 하고 현지에서 납품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特約店販賣도 特約店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販賣店이나 準特約店을 경유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2> 直賣의 流通構造



<그림-3> 特約店販賣의 流通構造



註：準特約店은 대외적으로는 特約店이라고 불린다.

제품별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輕質油의 경우는 特約店을 경유, 販賣店에서의 소매형태가 主宗을 이루는 반면, 重質油의 경우는 直売의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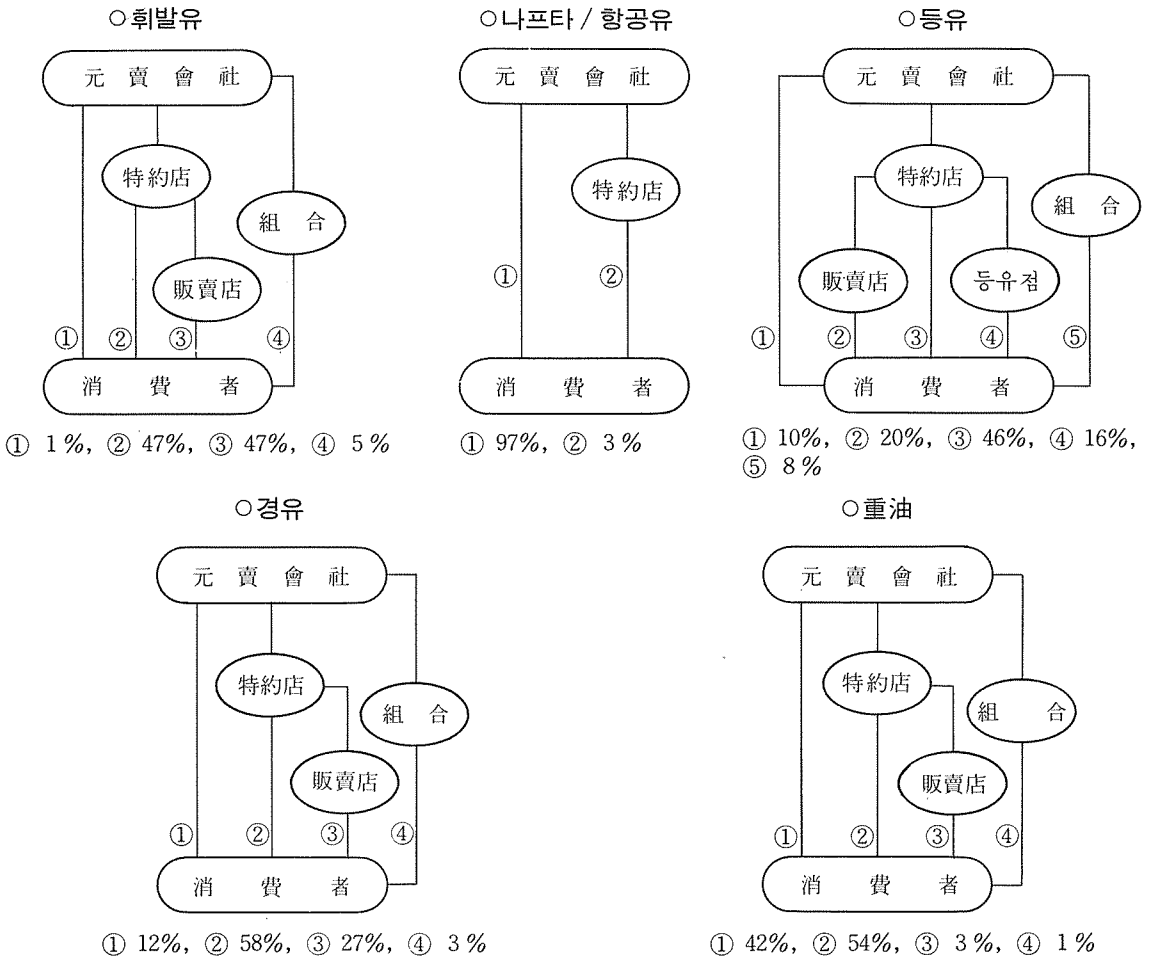
<그림-4>는 일본 최대의 元売會社인 日本石油(株)의 제품별 유통구조 및 판매경로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 元売會社와 精製會社

日本석유산업구조에 있어 特異한 점은 생산부문이 정제회사라는 형태로 元売會社로부터 독립, 별개의 기업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元売會社와 精製會社는 자본참여의 방식 및 형태에 따라 그 상관관계와 기능이 상이하다. 그러나 본질적으

〈그림-4〉 제품별 유통구조와 유통경로별 점유율



〈表-1〉 元賣會社의 시장점유율

로 元売會社は 우리나라의 精油會社에 해당되며 精製會社は 생산기능을 독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元売會社は 메이저의 자본참여 與否에 따라 外資系, 民族系로 구분된다. 또한 精製會社를 2개 이상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1개 精製會社가 1개 元売會社에 專屬되어 있는 경우, 精製會社가 자본을 투자하여 元売會社를 설립한 경우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일본 석유업계의 元売會社와 精製會社의 계열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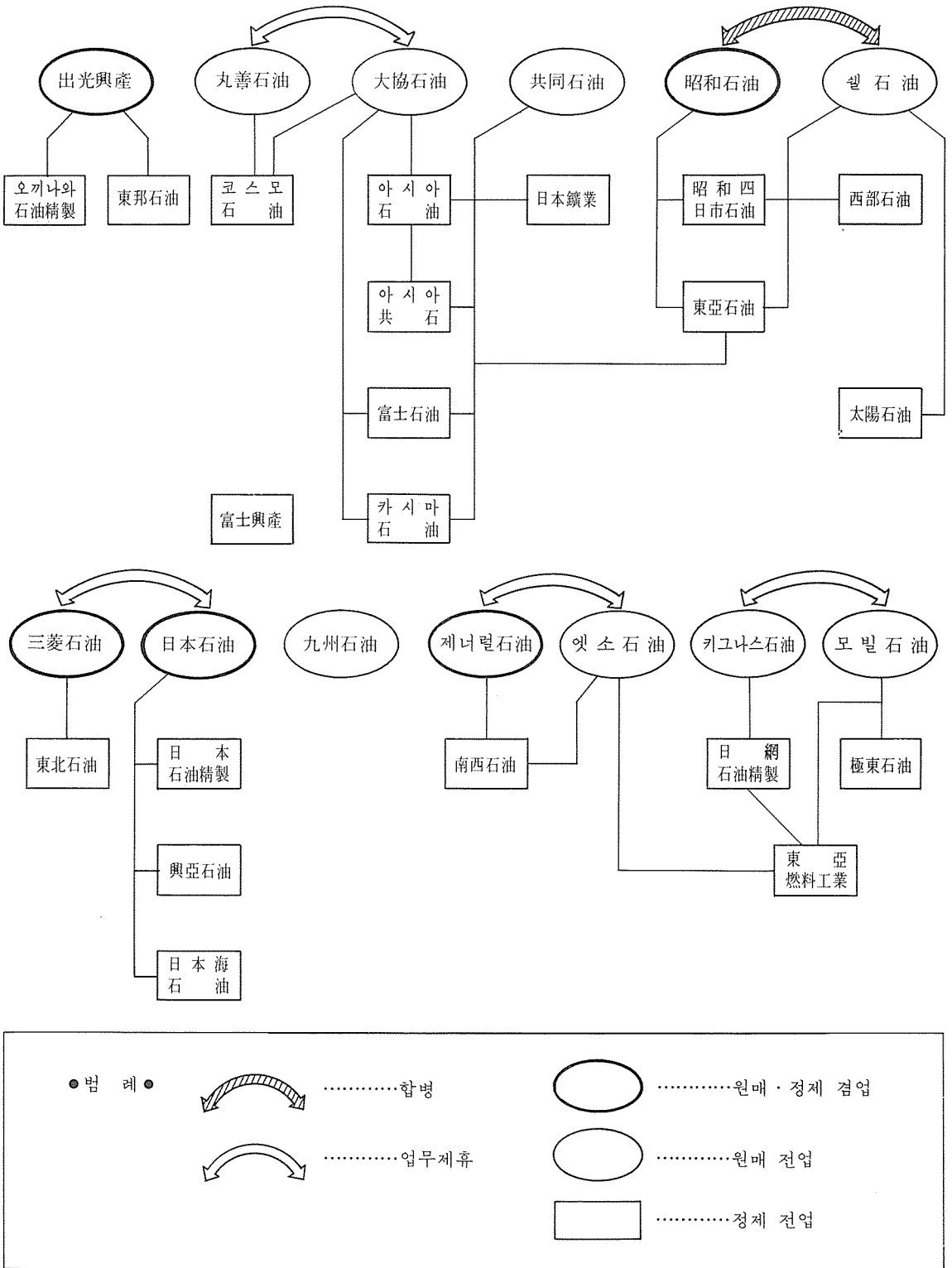
현재 일본의 元売會社は 12개이나 업무제휴 등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년말경에는 8개 정도로 통합될 것으로 通産省과 석유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元売會社별 시장점유율은 〈表-1〉과 같다.

한편 정제능력은 83년도에 5,940천B/D에 달했으나,

元 賣 會 社	점 유 율 (%)	
	연 료 유	휘 발 유
日 本 石 油	17.9	16.7
三 菱 石 油	7.4	7.7
九 州 石 油	2.2	1.3
出 光 興 産	15.0	14.4
丸 善 石 油	7.8	7.4
大 協 石 油	5.6	5.2
共 同 石 油	13.3	11.9
昭 和 一 號	11.6	14.0
잇 소	5.1	6.7
제 너 량 石 油	4.0	4.6
모 빌 石 油	6.5	8.3
키그나스石 油	1.4	1.8

〈그림 - 5〉 元賣회사와 정제회사의 계열관계



그 이후로 설비정리가 진행되어 968천B/D가 감축, 현재는 4,973천B/D이다. 일본석유업계의 정제능력 및 분해시설현황은 <表-2>와 같다.

<表-2> 정제시설 및 분해시설 현황

● 정제시설 현황

- 상 압 증 류 : 4,972,610 BPSD
- 감 압 증 류 : 1,798,840 "
- 접 촉 분 해 : 441,000 "
- 수 소 화 분 해 : 25,000 "
- 접 촉 개 질 : 571,500 "
- 중 질 유 탈 황 : 1,387,200 "
- 용 제 정 제(운환유) : 176,760 "

● 분해시설 신규 허가시설

- 허 가 규 모 : 104,300 BPSD
- 기 존 시 설 감 축 : △ 42,400 "

3. 特約店과 販売店

元売會社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直売去來分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석유제품은 9,065개의 特約店과 54,621개*의 販売店 즉 주유소를 통해 공급된다.

*이 주유소 숫자는 元賣會社를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주유소협회라고 할 수 있는 全國石油産業組合聯合會는 日本 전국의 주유소 수를 이보다 약간 많은 59,336 개로 보고 있다.

特約店이 유통단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의 대리점에 해당되나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特約店은 수송이나 저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수송, 저장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의 수송은 元売會社에서 직접 맡고 있다. 따라서 特約店의 역할은 영업활동이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元売會社は 特約店이 갖는 판매도구로서의 존재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即 特約店은 元売會社の 영업조직이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고유의 판매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特約店이 없을 경우 元売會社の 영업기구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확대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特約店만큼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元売會社は 特約店에 자본참여도 할 수 있고, 주유소(給油所)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元売會社 소유 주유소는 特約店에 임차하여 위탁경영 형태로 운영된다.

元売會社가 자본참여하고 있는 特約店 수는 약 800개로 전체 特約店の 9%에 이른다.

주유소의 소유형태별 분류를 보면 <表-3>과 같다.

<表-3> 소유형태별 주유소 분류

○元賣會社 소유	9,743개소
○特約店 직영	15,148개소
○自 營	29,730개소
計	54,621개소

特約店은 1개의 元売會社와만 거래를 하며, 주유소即 販売店の 경우도 元売會社の 브랜드를 게시한 곳은 1개의 特約店과 거래하고 있다.

特約店系列관계자의 표현을 빌면, 현재 系列化가 진행중이라고 하나, 元売會社の 브랜드를 표시하지 않은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약 200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想到할 때 실질적으로 계열화가 완료되었다고 이해하여도 좋을 듯 하다.

계열화의 추진은 通産省의 행정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나 關係者들은 한결같이 元売會社の 희망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계열화는 石油業法上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独占禁止法上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규정인 상표권보호조항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元売會社の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는 同元売會社の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고 확대해석한 것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석유는 流体이므로 판매단위별 상표표시가 불가능하여 販売店에 게시된 상표에 부합하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현재 일본석유유통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 제점은 영세성과 과당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日本全國石油業 協同組合聯合會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特約店과 주유소업자를 통틀어 운영주유소가 1개에 불과한 사업자수가 77.1%에 달하고 있으며, 10개 이상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表-4〉는 주유소의 운영규모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表-4〉 사업자당 주유소 운영규모 실태

운영주유소수	사업자수	구성비(%)
1	27,077	77.1
2	4,153	11.8
3	1,488	4.2
4	733	2.1
5	450	1.3
6	265	0.8
7	211	0.6
8	151	0.4
9	114	0.3
10-14	266	0.8
15-19	96	0.3
20-29	62	0.2
30-39	28	0.1
40-49	11	0.0
50-99	16	"
100이상	2	"
계	35,123	100

1개 주유소당 월간 평균판매량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함없이 52-54kl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판매 수익은 80년의 0당 18.7円에서 84년 10.1円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83년, 84년 계속하여 유통업계의 약 50%가 적자를 나타냈으며, 금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 유통업계의 통일된 우려의 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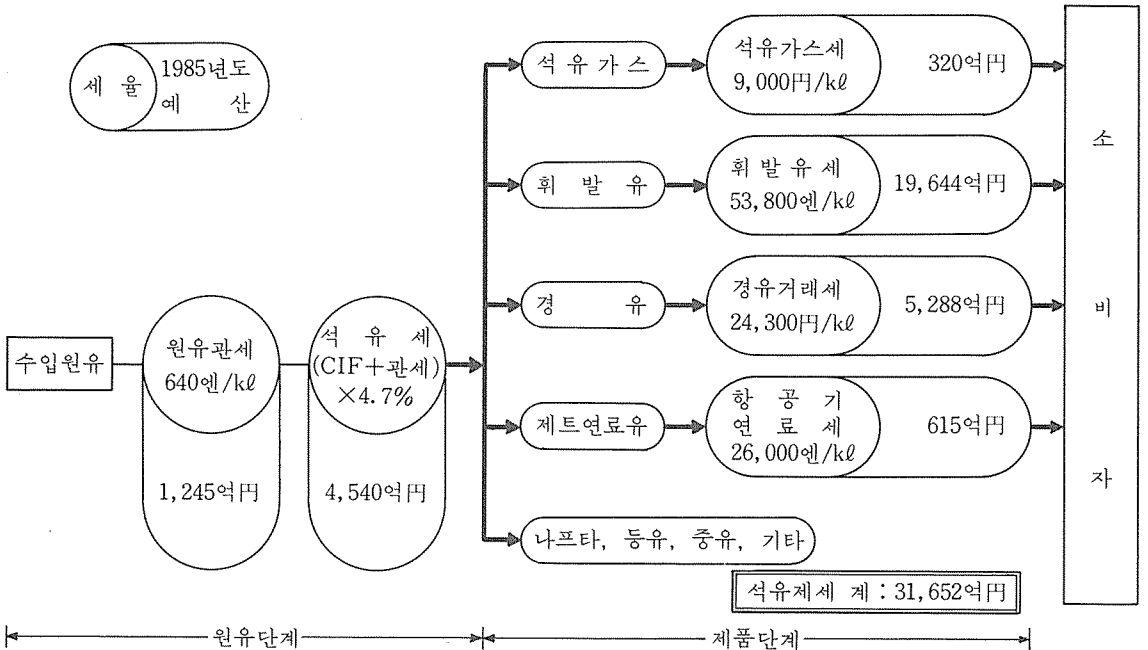
일본석유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유소는 규모의 대형화, 직영화 및 영업의 다각화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소방법상의 제반 규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해제되어 주유소는 Convenience store의 겸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IV. 석유관련制度

1. 稅 制

日本の石油類 稅制는 수입원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및 석유세와 제품별로 부과하는 석유가스세, 휘발

〈그림-6〉 石油類 稅制現況



註 : ○84. 9. 1 「석유세」 개정 : 3.5%→4.7%

-수입 LPG, LNG, 국산천연가스에 신규부과 : 1.2%

〈表 - 5〉 석유제세의 징수액 및 용도 (1985년도 정부예산)

세 별		세 수	용 도		비 고
석유소비세	휘 발 유 세	19,644억엔	도 로 정 비	19,644억엔(100.0%)	
	경 유 거 래 세	5,288	도 로 정 비	5,288 (100.0%)	
	석 유 가 스 세	320	도 로 정 비	320 (100.0%)	
	항 공 기 연 료 세	615	공 항 등 정 비	615 (100.0%)	
	석 유 세 (수입LPG, LNG, 국산천연가스포함)	4,540	석유대체에너지대책	567 (12.2%)	
석 유 관 세 (원 유 관 세 등)	1,245	석 유 대 책	92 (6.8%)	● 석유대책 (4,157억엔) 내역 ┌ 민 간 비 축 671 (16.1%) ┌ 국 가 비 축 1,962 (47.2%) ┌ 석 유 개 발 1,321 (31.8%) └ 기술개발, 유통등 203 (4.9%)	
		석 탄 대 책	1,259 (93.2%)		
합 계	31,652억엔	도 로 정 비	25,252 (79.3%)		
		공 항 등 정 비	615 (1.9%)		
		석 탄 대 책	1,259 (4.0%)		
		석 유 대 책	4,157 (13.0%)		
		석유대체에너지대책	567 (1.8%)		
		계	31,850억엔(100.0%)		

유세, 경유거래세, 항공기연료세로 나뉘어진다.

석유세를 제외한 모든 石油類稅는 從量稅이다.

석유세의 세율은 輸入額(CIF價格+關稅)의 3.5%였으나, 84년 9월 1일부터 4.7%로 인상되었으며, 輸入 LPG와 LNG 및 국산천연가스도 부과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들 신규과세대상품목의 석유세율은 원유와 달리 1.2%이다.

石油類稅는 目的稅로 도로정비에 79.3%, 석탄산업 육성을 위하여 4%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稅收중 석유산업과 관련하여 쓰이는 부분은 13%에 불과하다. 석유대책을 위한 용도는 비축과 석유개발이 95%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사

용되고 있다.

〈그림-6〉은 石油類稅制의 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表-5〉는 稅收와 用途를 85년도 정부예산 기준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石油製品의 輸入制度

기본적으로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은 消費地精製主義를 基調로 하여 連產品인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국내공급으로 부족한 제품에 한하여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나프타, 重油, LPG의 수입이 허용되고

〈表 - 6〉 油種別 輸入制度

유 종	수 입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프타 •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 重油 • 보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년 4월이후 수입자유화 • 연산품인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나, 겨울철 수급확보상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함. • 농림어업용 A重油, 저유황 C重油의 수입은 인정 • 72년 4월이후 할당관세 적용 • 제트유, 重油에 대하여 실시

〈表-7〉 관세 할당제도(重油 및 粗油)의 개요

	도입시기	도입이유	할 당 방 법	신청자격자(84년도분)
농림어업용	1972년 4월	영세기업인 농림·어업의 보호육성	(1) 할당방식—사전할당방식 (2) 할당물량—석유공급계획 기준(국내수요예상량—국내생산예상량) (3) 신청자별 할당물량(84년도) 할당수량=총량×(81~83년도에 있어서 당해신청자의 농림어업용 重油 및 粗油의 관세할당에 의거한 수입실적수량)÷(81~83년도에 있어서 당해 신청자별 농림어업용 重油 및 粗油의 관세할당에 의거한 수입실적수량의 합계)	81년도 이후 농림어업용 중유의 관세할당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발주를 받아 농림·어업용에 공급할 수 있다는 농림수산성 농림원에국장의 증명서를 가진자(元賣 4社) ②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발주를 받아 어업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수산청장관의 증명서를 가진 자(商社 5社) ③ 전국 석유업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농림어업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자(元賣 12社, 商社 6社)
기 타	1972년 4월	자유화에 따른 시황혼란, 수급불균형 등 국내 석유산업에 끼치는 급격한 상황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1) 할당방식—사전할당방식 (2) 할당물량—석유공급계획 기준(국내수요 예상량—국내생산 예상량) (3) 신청자별 할당수량(84년도) 할당물량=총량×(82년도 및 83년도에 당해 신청자의 重油 및 粗油의 관세할당에 의거한 수입실적수량)÷(82년도 및 83년도의 당해 신청자별 重油 및 粗油의 관세할당에 의거한 수입실적수량의 합계)	82년도 및 83년도에 重油 및 粗油의 관세할당을 받고, 당해 할당에 의거한 수입실적을 가진자(정제·元賣 29社, 商社 11社)

있으며, 輸入者는 실질적으로 석유정제업자에 한정되어 있다. 重油와 항공유의 수입은 관세할당제도와 保稅輸入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은 石油業法상 通産省이 석유수입계획에 대해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V. 当面問題와 대응

일본석유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前述한 바

와 같이, 流通市場에서의 과당경쟁, 환율상승에 따른 原油費부담증가, 제품수입압력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수요가 현저하게 감소된 상황에서 시장경쟁의 격화로 유통업계와 元売會社는 다같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주유소의 극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元売會社가 할인판매에 대해 事後調整制를 통해 損失補填을 실시함에 따라 元売會社의 손익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 석유업계는 通

〈表-8〉 할당관세율의 변동추이

(單位: 円/kℓ)

		72년 4월 (관세할당실시)	77년 4월	78년 6월	82년 4월	
농림어업용 重油 및 粗油		1차 無稅 2차 2,280	1차 無稅 2차 2,280	1차 無稅 2차 2,280	1차 無稅 2차 3,930	
重油 및 粗油 (농림어업 용 제외)	병커 A	1차 955 2차 2,280	1차 1,070 2차 2,280	1차 955 2차 2,280	1차 1,640 2차 3,930	
		병커 B	1차 730 2차 2,280	1차 835 2차 2,280	1차 730 2차 2,280	1차 1,260 2차 3,930
	병커 C		1차 660 2차 2,280	1차 750 2차 2,280	1차 660 2차 2,280	1차 1,140 2차 3,930
		세율설정근거		농림어업용 1차세율 —영세수요가 보 호라는 관점에서 無稅로 되었다.	左 同	左 同
	重油 및 粗油(농림· 어업용 제외)의 1차 세율—석탄대책재원 확보를 위해 63년 4 월이래 설정된 세율 을 그대로 채택, 重 油 및 粗油(농림·어 업용 제외)의 2차 세율—수입重油의 주 체는 C重油이며, 이 를 보호하면 충분하 다는 관점에서 타제 품의 사례(기본세율 에 대한 최고倍率의 4배)를 참고하여 2,280엔/kℓ(C重油의 기본세율 570엔/kℓ ×4)로 설정하였다.			석유비축, 개발대책 및 석탄대책의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해 1 차 세율이 인상되었 다(원유베이스로 110 円/kℓ 인상).	석유비축, 개발등석 유공급안정대책 재 원으로 충당하기 위 하여 「석유세」가 신 설됨에 따라 1차세 율은 63년~76년 당 시의 세율로 환원되 었다.	80년도 C重油의 평 균적인 내외 가격차 를 해소하는 수준으 로 2차세율이 설정 되고(2,280엔/kℓ → 3,930円/kℓ(1.72배)), 1차세율에 대해서 도 同率이 인상되었 다.

産省의 行政指導하에 系列化를 추진, 현재 完結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 신설의 금지, 정제시설의 감축, 元壳會社의 통합을 통하여 체질강화와 경쟁완화를 노리고 있으나 相對的 石油需要의 감소 및 향후 상당기간 동안 絶對需要의 保合이라는 전망하에서 그 효과는 期待値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元壳會社는 通産省 承認가격까지의 점차적인 가격인상, 외상기간의 단축, 事後精算制의

중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환율상승으로 인한 原料費증가가 겹쳐 元壳會社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석유제품가격 책정시 반영된 환율은 ¥245/U\$1이나 84년 이후의 달러강세로 실질원유비는 크게 증가한 실정이다. 더우기 非現實的으로 낮은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현재의 제품가격도 과당경쟁으로 제값을 못받고 있어서 석유업계는 마치 병어리 냉가슴 앓듯 苦境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전스기가의 단축, 선물환거래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원유도입금융비용을 감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원유수입 자체의 円貨去來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본질적인 문제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表-10〉은 日本의 元売會社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영의 效率化와 多角化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영노력과 함께 일본석유업계는 原油輸入에 부과되고 있는 關稅와 石油稅의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동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에 따른 中東產 石油製品 輸入壓力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現地에서 받은 인상이었다. 실제로 EC의 사무국장 등이 日本을 방문하여 中東의 수출예상 석유제품 물량 100만B/D 중 약 60%를 日本이 소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日本석유업계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表-9〉 할당關稅量 및 輸入實績

① 農林漁業用 重油 및 粗油

(單位: 千kl, %)

年度	關稅割當			內需量(農林漁業用) B	A/B
	割當數量	輸入實績A	消化率		
72	2,680	2,451	91.5	4,875	50.3
73	3,302	2,084	63.1	5,197	40.1
74	3,200	1,514	47.3	5,206	29.1
75	2,900	1,324	54.6	5,369	24.7
76	2,600	1,109	42.7	5,803	19.1
77	2,600	1,083	41.7	5,909	18.3
78	2,600	1,371	52.7	6,249	21.9
79	2,600	1,475	56.7	6,105	24.2
80	2,600	458	17.6	5,808	7.9
81	2,000	1,334	66.7	5,782	23.1
82	2,000	1,458	72.9	5,245	27.8
83	2,000	1,675	83.8	5,853	28.6

② 重油 및 粗油(農林漁業用 以外)

(單位: 千kl, %)

年度	關稅割當			內需量(農林漁業用以外)B	A/B	유황분 1.0% 以下のB-C油의 內需量 C	A/C
	割當數量	輸入實績A	消化率				
72	12,511	11,974	95.7	114,161	10.5		
73	11,210	11,070	78.8	125,115	8.8		
74	12,600	9,729	77.2	113,686	8.6		
75	11,000	7,059	64.2	106,527	6.6		
76	9,000	7,972	88.6	112,271	7.1		
77	8,000	7,735	96.7	112,417	6.9		
78	6,000	5,994	99.9	111,755	5.4		
79	6,500	6,498	100.0	110,103	5.9		
80	6,500	6,477	99.6	94,474	6.9	34,377	18.8
81	5,500	5,499	100.0	87,307	6.3	32,284	17.0
82	5,500	5,500	100.0	73,339	7.5	30,375	18.1
83	5,500	5,499	100.0	73,047	7.5	30,620	18.0

이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① 중동산유국의 정유공장은 메이저와의 합작투자사업으로 이는 미국 및 서구국가가 원유도입의 불안정을 補完하기 위한 Hedge手段임. 따라서 日本이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음.

② 84년도 日本의 석유제품수입은 국내수요의 17%

에 달하여 타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음.

③ 원유를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日本으로서는 소비자경제주의 기조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속 견지하여야 함.

▲ 세계 석유무역의 8 할 이상이 원유거래이므로 제품보다 원유가 안정적임.

〈表-10〉 원매회사의 경영효율화, 다각화 전략

	효 율 화	다 각 화
日本石油	○금융수지 개선, 재고감축, 자금조달, 운용의 일원관리(그룹 9개사) ○인원 삭감	○석유개발(중점분야) ○석탄수입판매(Caltex와 제휴) ○LNG 수입판매(Chevron과 제휴) ○탄소섬유, 암조기개발·치료제 ○순 수소 제조
出光興産	○금융비용의 삭감, 재고감축, 단기차입금 상환, 달러 유잔스기간의 단축 ○조직의 간소화 ○판매전문회사 설립(지점과 특약점의 보완) ○저유소의 통폐합(88→69)	○종합에너지 기업화(원유, 석탄, 우라늄, 지열개발) ○생화학분야(바이오 테크놀러지) ○탄소섬유
共同石油	○컴퓨터화/제품스왑(본지점, 저유소, 특약점, 판매점)→사무의 합리화(인원삭감)	○「共石興業」: 부동산 부문 ○통신판매
三菱石油	○인원삭감(2년간 300명) ○조직 간소화 ○저유소의 집약화(공동이용, Swap) ○차입금, 재고감축	○「三石 트레이딩」: 주유소에서 비석유제품의 기획, 구입·판매 ○「三石 정보시스템」: 컴퓨터-소프트웨어 ○「三石 엔지니어링」: 해외기술협력 ○석탄, 우라늄의 수입판매
丸善石油	○인원삭감(3년간 1,600명) ○정유공장의 분리독립 ○석유화학부문의 영업권 양도 ○저유소의 공동이용, 제품 Swap ○주유소의 QC 서클활동	○연구시약, 임상시약의 수입판매 ○「丸善石油産業」 설립 ○통신판매
大協石油	○아시아석유와의 협업화(수입, 뱅커) ○인원삭감(330명) ○원유가격 인하, 선별조달 ○통신판매	○INS 분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코스모, 에이티, IBM과 제휴, 협력 ○주유소 재개발 전문회사(주유소기능의 재평가와 다각화) ○소비자금융 ○석탄의 수입판매
昭和石油	○「셀석유」와의 협업화(원유선택, 공동배선, 저유소의 통폐합) ○그룹내 정유공장의 최적화 조업시스템 ○인원삭감	○「昭和엔지니어링」 설립: 엔지니어링 분야 ○태양전지의 판매(Arco, Solar사) ○석탄의 수입판매
셀石油	○「昭和石油」와 협업화 ○인원 삭감 ○저유소, 주유소의 삭감	○폐기저유소, 주유소 토지이용, 빌딩대여, 주택부문, 식당병영 입체주차장 ○LNG, 석탄의 수입판매(셀興産)
옛소石油	○인원 삭감 ○저유소의 공동이용(제너럴석유) ○신형주유소 신설 ○외상매출금의 단기회수(30일→15일)	○「옛소 프라자」: 편의점 ○소비자금융(유니온 크레디트 제휴) ○석탄의 수입판매
모빌石油	○저유소의 삭감 ○제품 Swap(판매량의 1/4) ○LPG 기지 공동이용	○「제펜 솔라 에너지」: 태양전지(松下, 京세라와 제휴) ○「이스턴 리스」: 리스업

	효 율 화	다 각 화
제너럴石油	○출하터미널의 효율화(바텀 로딩식 출하장치) ○인원 삭감	○「제너럴물산」: 홈 일렉트로닉스(퍼스콤 판매) 부동산부문

▲석유는 連産品이므로 원유를 도입, 정제하는 것이 수요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며 부가가치도 원유의 도입, 정제가 높음.

▲원유수입시는 대형 유조선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운임면에서 경제적이며 비축용으로도 제품보다 원유가 호

울적임.

日本 석유업체가 上述한 바와 같은 挑戰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可能性의 一端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참 고 자 료

(1) 석유제품 생산구성비 추이

(單位: %)

유 종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휘 발 유	14.5	15.2	16.6	18.3	20.6	20.4	21.2
나 프 타	10.8	10.9	10.1	9.1	7.4	6.6	6.5
航 空 油	1.7	1.9	2.2	2.4	2.5	2.3	2.3
등 유	11.1	11.6	11.4	12.1	12.6	14.3	14.9
경 유	8.6	9.5	10.3	11.3	12.6	13.4	14.5
병 커-A 油	9.1	9.7	10.0	10.2	10.3	10.6	11.0
병 커-B 油	2.9	2.8	2.5	2.1	1.5	1.4	1.3
병 커-C 油	41.3	38.5	37.0	34.6	32.4	30.9	28.4
(重 油 計)	(53.3)	(51.0)	(49.5)	(46.9)	(44.3)	(42.9)	(40.7)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윤활유 및 기타제품(아스팔트, 그리스, 파라핀)은 제외.

(2) 석유제품별 판매, 수출실적(83 / 84년도)

(單位: 천kl, 기타는 천톤)

유 종 별	1983년도		1984년도	
	판 매	수 출	판 매	수 출
휘 발 유	36,065	—	36,096	1
나 프 타	23,836	—	24,190	11
航 空 油	2,809	1,523	2,836	1,193
등 유	25,496	9	24,578	15
경 유	23,838	77	24,798	126
重 油	78,915	3,898	74,023	2,920
연 료 유 計	190,960	5,507	186,519	4,267
윤 활 유	2,014	259	2,120	221
기 타	5,054	67	5,356	61
합 계	198,028	5,834	193,996	4,549

註: 기타-아스팔트, 그리스, 파라핀.

〈資料〉 석유연맹 「석유자료월보」

(3) 석유제품별 생산, 수입실적(83 / 84년도)

(單位: 천kl, 기타는 천톤)

유 종	1983년도		1984년도	
	생 산	수 입	생 산	수 입
휘 발 유	35,800	—	36,379	—
나 프 타	11,607	13,797	11,097	14,006
航 空 油	4,059	466	4,026	24
등 유	25,140	—	25,495	—
경 유	23,596	—	24,867	—
重 油	75,345	7,247	69,806	7,205
연 료 유 計	175,576	21,511	171,672	21,236
윤 활 유	2,174	50	2,250	48
기 타	5,147	1	5,439	2
합 계	182,897	21,562	179,361	21,285

註: 기타-아스팔트, 그리스, 파라핀

〈資料〉 석유연맹 「석유자료월보」

(4) 日本경제와 에너지

연도	국민총생산 (75년가격 억円)	광공업생산 지수 (80년=100)	총에너지 수 10 ⁹ Kcal	석유제품 판매량 천Kℓ	수입금액		
					석유류 (억円)	총수입 (억円)	석유수입 비중(%)
1978	1,741,465 (5.1)	90.4 (7.0)	379,825 (3.9)	235,083 (2.5)	55,450	170,591	32.50
1979	1,833,857 (5.3)	97.6 (8.0)	390,325 (3.9)	233,166 △(0.8)	108,571	276,099	39.32
1980	1,918,730 (4.6)	99.7 (2.2)	373,001 △(4.4)	209,218 △(10.3)	135,417	314,771	43.34
1981	1,986,497 (3.5)	101.7 (2.0)	364,269 △(2.3)	194,511 △(7.0)	138,955	322,446	43.09
1982	2,052,603 (3.3)	101.1 △(0.6)	—	182,663 △(6.1)	130,397	317,656	41.05
1983	2,127,849 (3.7)	107.6 (6.4)		190,924 (4.5)	114,941	305,976	37.57

註：()안：전년대비 증감률
 〈資料〉 석유연맹 「내외석유자료」

(5) 장기에너지 공급전망

종별	1981년도		1982년도		1983년도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수량	구성비%
石油	2.67억kℓ	64.2	2.40억kℓ	61.9	2.55억kℓ	62.0	2.56억kℓ 이상	55.8	2.64억kℓ 이상	53.6	2.76억kℓ 이상	52.1
수력	일반 1,930만kw	5.7	1,940만kw	5.4	1,950만kw	5.6	2,080만kw	5.3	2,180만kw	5.2	2,240만kw	5.0
	양수 1,230만kw		1,400만kw		1,410만kw		1,760만kw		1,940만kw		2,150만kw	
지열	35만kℓ	0.1	40만kℓ	0.1	40만kℓ	0.1	50만kℓ	0.1	80만kℓ	0.1	120만kℓ	0.2
석탄	9,780만t	18.0	9,450만t	18.5	9,520만t	17.5	10,920만t	17.9	11,370만t	17.3	12,180만t	17.2
원자력	1,620만kℓ	5.5	1,730만kw	6.9	1,840만kw	7.1	3,025만kw	9.8	4,090만kw	12.3	4,850만kw	13.6
천연가스	2,620만kℓ	6.3	2,700만kℓ	7.0	3,030만kℓ	7.4	4,950만kℓ	10.8	5,550만kℓ	11.2	6,150만kℓ	11.6
新에너지등	80만kℓ	0.2	90만kℓ	0.2	100만kℓ	0.2	130만kℓ	0.3	140만kℓ	0.3	170만kℓ	0.3
합계	4.16억kℓ	100.0	3.88억kℓ	100.0	4.12억kℓ	100.0	4.58억kℓ 이상	100.0	4.94억kℓ 이상	100.0	5.29억kℓ 이상	100.0

(6) 수입원유의 가격 추이(CIF 기준)

(單位：円 / kℓ)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8,401	26,236	47,206	51,387	54,383	45,861

〈資料〉 석유연맹 「내외석유자료」

(7) SPOT 원유 도입비율 추이

1980	1981	1982	1983	1984
8.7%	5.3%	12.0%	18.7%	26.1%

(8) 석유제품 장기수요 전망 및 수요구조 변화추이

(單位 : 10³kℓ, LPG : 10³t)

연도 유종	1980	1981	1982	1983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감률(%)			
	(실적)	(실적)	(실적)	(실적)				83-90	90-95	95-2000	83-2000
●자동차용	34,722	35,016	35,088	35,828	39,365	41,800	44,304	1.4	1.2	1.2	1.3
●기타	271	270	254	259	259	265	270	0.0	0.5	0.4	0.2
휘발유	34,543 (16.5)	35,286 (18.1)	35,342 (19.3)	36,087 (18.9)	39,624 (20.5)	42,065 (20.8)	44,574 (21.2)	1.3	1.2	1.2	1.3
●석유화학용	22,241	20,380	19,865	21,647	20,308	20,443	20,582	△ 0.9	0.1	0.1	△ 0.3
●가스·비료용	2,725	1,705	1,178	1,680	1,126	1,198	1,207	△ 5.6	1.2	0.1	△ 1.9
●연료용	1,333	986	686	487	500	500	500	0.4	0.0	0.0	0.2
나프타	26,299 (12.6)	23,071 (11.9)	21,729 (11.9)	23,814 (12.5)	21,934 (11.3)	22,141 (10.9)	22,289 (10.6)	△ 1.2	0.2	0.1	△ 0.4
航空油	2,967 (1.4)	2,855 (1.5)	2,753 (1.5)	2,791 (1.5)	3,305 (1.7)	3,588 (1.8)	3,841 (1.8)	2.4	1.7	1.4	1.9
●산업용	7,083	7,086	6,613	7,001	7,044	7,210	7,358	0.1	0.5	0.4	0.3
●기타	16,482	16,551	15,533	18,493	17,361	18,282	19,152	△ 0.9	1.0	0.9	0.2
등유	23,565 (11.3)	23,637 (12.2)	22,146 (12.1)	25,494 (13.4)	24,405 (12.6)	25,492 (12.6)	26,510 (12.6)	△ 0.6	0.9	0.8	0.2
경유	21,563 (10.3)	21,774 (11.2)	22,108 (12.1)	23,839 (12.5)	27,173 (14.1)	29,645 (14.7)	31,730 (15.1)	1.9	1.8	1.4	1.7
벵커-A油	21,082 (10.1)	20,135 (10.4)	19,108 (10.5)	20,089 (10.5)	20,134 (10.4)	20,523 (10.1)	20,968 (10.0)	0.0	0.4	0.4	0.3
●전력용	36,972	34,854	30,309	29,860	26,800	28,000	28,000	△ 1.5	0.9	0.0	△ 0.4
●기타	42,228	32,896	29,167	28,911	29,965	30,747	32,172	0.5	0.5	0.9	0.6
벵커B,C油	79,200 (37.9)	67,750 (34.8)	59,476 (32.6)	58,771 (30.7)	56,765 (29.4)	58,747 (29.1)	60,172 (28.7)	△ 0.5	0.7	0.5	0.1
重油計	100,282 (48.0)	87,885 (45.2)	78,584 (43.1)	78,860 (41.2)	76,899 (39.8)	79,270 (39.2)	81,140 (38.7)	△ 0.4	0.6	0.5	0.2
연료유계	209,219 (100.0)	194,508 (100.0)	182,662 (100.0)	190,885 (100.0)	193,340 (100.0)	202,201 (100.0)	210,084 (100.0)	0.2	0.9	0.8	0.6
전력용원유	14,057	14,592	13,295	14,403	8,000	5,000	5,000	△ 8.1	△ 9.0	0.0	△ 6.0
●석유화학용	1,212	1,852	1,990	2,468	2,500	2,500	22,500	0.2	0.0	0.0	0.1
●전력용	3,124	2,372	1,749	1,676	1,000	500	500	△ 7.1	△ 12.9	0.0	△ 6.9
N G L	4,336	4,224	3,739	4,144	3,500	3,000	3,000	△ 2.4	△ 3.0	0.0	△ 1.9
합계	227,612	213,324	199,696	209,432	204,840	210,201	218,084	△ 0.3	0.5	0.7	0.2
L P G	13,949	14,919	15,649	14,617	17,529	18,826	20,070	2.6	1.4	1.3	1.9

(9) 수입원유의 API 및 유황함량 추이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API	34.22	34.25	34.41	34.79	34.65	34.59
●유황분(%)	1.42	1.44	1.43	1.38	1.37	1.38

〈資料〉 석유연맹 「내외석유자료」

(10) 국별 원유도입 구성비 추이

(單位: %)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中 共		3.2	3.1	3.8	4.7	4.9	5.3	6.3
동 남 아	말 레 이 지 아	0.7	1.2	1.3	0.9	0.6	0.7	1.3
	사 라 와 크	0.4	0.5	0.5	0.5	0.5	0.6	0.9
	사 바	1.1	0.8	0.5	0.6	0.8	0.7	0.7
	브 루 베 이	3.4	3.3	3.0	2.0	2.4	2.2	2.0
	인 도 네 시 아	13.0	14.5	15.0	15.9	14.5	14.0	12.3
소 계		18.6	20.3	20.3	19.9	18.8	18.2	17.2
中 東	이 란	12.9	13.0	2.3	5.2	7.2	10.8	6.5
	이 라 크	3.9	6.1	5.5	2.0	1.4	0.3	0.6
	바 레 인	—	—	0.0	0.1	—	—	—
	사우디아라비아	29.7	26.9	33.0	35.3	32.9	28.1	26.7
	쿠 웨 이 트	8.3	7.8	3.5	3.3	0.9	1.7	2.4
	중 럽 지 대	5.8	5.9	5.4	4.0	5.4	6.3	6.0
	카 타 르	2.7	2.6	3.5	3.2	3.8	4.5	5.5
	오 만	3.9	3.5	3.5	3.6	4.1	4.9	6.7
	U. A. E	10.7	10.2	14.7	12.6	14.7	14.6	16.6
소 계		77.9	76.0	71.4	69.3	70.4	71.2	71.1
유 럽	노 르 웨 이	—	—	0.1	—	—	—	—
	소 련	0.0	0.0	0.0	0.0	0.0	0.1	—
	소 계		0.0	0.0	0.1	0.0	0.0	0.1
北 美	캐 나 다	—	—	—	—	—	0.1	—
	멕 시 코	0.0	—	0.8	1.9	3.5	3.6	4.1
南 美	베 네 수 엘 라	0.1	0.2	1.0	1.1	0.6	0.6	0.4
	에 콰 도 르	—	—	0.7	0.3	—	—	0.1
	페 루	—	—	0.0	0.4	0.5	0.1	—
	소 계		0.1	0.2	1.7	1.8	1.1	0.7
아프리카	알 제 리	0.1	0.1	0.8	1.3	0.9	0.5	0.3
	리 비 아	0.0	0.3	0.5	0.5	—	—	—
	이 집 트	—	—	0.1	0.2	0.4	0.3	0.6
	나 이 지 리 아	—	—	0.3	0.4	—	—	—
	앙 고 라	—	—	0.2	0.0	—	—	—
소 계		0.1	0.4	1.9	2.4	1.3	0.8	0.8
濠 洲		0.1	0.0	—	—	0.0	0.0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O P E C 計		87.2	87.5	86.2	85.1	82.2	81.4	71.4
O A P E C 計		61.2	59.8	67.0	62.4	60.4	56.3	52.7

〈資料〉 석유연맹「내외석유자료」

(11) 1 차에너지 공급 구성비 및 자금률

(單位 : %)

연도	수 력	석 탄			石 油			천연가스
		국내탄	수입탄	계	국산원유	수입원유 / 제품	계	
1977	4.8	3.3	11.6	14.9	0.2	74.3	74.5	0.8
1978	4.7	3.3	10.5	13.8	0.1	72.8	72.9	0.7
1979	5.1	2.9	11.1	14.0	0.1	71.0	71.1	0.6
1980	5.7	3.1	13.9	17.0	0.1	75.7	65.8	0.6
1981	5.8	3.0	15.3	18.3	0.1	63.6	63.7	0.6
1982	5.6	3.2	15.5	18.7	0.1	61.5	61.6	0.6

연 도	LNG	원자력	신 탄	총 계	자 급 률	
					(국 산)	(수 입)
1977	2.9	2.0	0.1	100.0	(12.0)	(88.0)
1978	4.0	3.8	0.1	100.0	(12.7)	(87.3)
1979	4.9	4.2	0.1	100.0	(13.0)	(87.0)
1980	5.7	5.1	0.1	100.0	(14.7)	(85.3)
1981	5.9	5.6	0.1	100.0	(15.2)	(84.8)
1982	6.5	6.9	0.1	100.0	(16.5)	(83.5)

〈資料〉 석유연맹 「내외석유자료」

□ 消費国動向 □

日本 原油決濟 円貨支拂모색

日本 통산성 資源에너지庁은 최근 石油聯盟 회원사들에게, 수입원유의 결제를 현행 美달러 貨에서 円貨로 바꾸는 경우의 조건들을 제시했다. 이 試案에 의하면 円貨 거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外에, 円貨價格은 円과 달러 換率을 참고로 산유국과 日本 石油會社가 4分期 단위로 교섭한다는 것이다.

同 試案은 円貨로 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은 안정거래가 가능토록 1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다. 또한 円貨價格은 直前의 4分期 실세환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試案이 제시된 것은 日本 에너지 供給源의 60%를 차지하는 석유의 조달 코스트가 모두 美달러 貨 가격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円貨에 대한 달러 價値가 10円 상승하면 석유수입량 전체로 보아 연간 4,000億円の 추가 코스트가 발생하므로

물가상승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通産省은 이제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산유국에 담당관을 파견하는 한편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에는 駐在 大使館을 통해 原油去來의 円貨決濟案을 타진해 왔다. 同省은 尤로円債(円貨債權)를 포함한 円資産의 운용방법, 尙日 채무의 返濟등 円貨의 사용방안을 各國에 제시해 왔다. 原油去來의 円貨決濟가 이루어지면 日本 石油會社의 美달러 貨 買入需要가 감소됨으로써 달러 貨 高價値 傾向이 수정되어 國際 原油需要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던 것이다.

通産省은, 円貨決濟가 실시되면 ① 석유제품 價格이 안정된다. ② 달러 買入 需要가 줄어들어 換率을 円貨價値 上昇으로 유도할 수 있다. ③ 그렇게 되면 美·日間 貿易마찰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